

전우원, 5·18 유족·피해자와 광주서 만난다

〈전두환 손자〉

어제 광주 도착... 오늘 사죄 일정
5·18센터 방문·민주묘역 참배 예정
최초 사망자·최연소 희생자 등 추모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력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할 예정이다.

전씨는 30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서

구 치평동의 한 호텔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전씨는 광주에 온 첫 소감으로 "(광주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 온 것은) 의미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5·18민

주화운동)피해자를 비롯, 상처받은 모든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주고 싶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를 안내할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씨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심경을 밝히고 유족 및 피해자와 대면한다. 이날 고등학생 시민군 故 문제학군의 어머니

인 김길자씨와 총상 부상자인 김태수씨, 상무대에서 고초를 겪은 김관씨가 유족 및 피해자를 대표해 전씨와 만남을 갖는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고 나서 4000여명의 5·18 유공자 명단이 있는 5·18기념공원의 추모송화공간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 당시 최 초사망자인 김경철씨와 11살의 최연소

나이로 희생 당한 전재수군 그리고 행방 불명자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줄곧 호소해오면서 지난 28일 오전 6시께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왔으나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38시간여만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곧바로 광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간이검사는 음성으로 알려졌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하라”

전남대 교수 227명 성명 발표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30일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대신 한국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차 변제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

했다. 또한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상호준중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피해자의 존엄과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외교적 흥정을 대가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윤 정부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죄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의 울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의 교수들은 불의에 맞서 연대



한은미 전남대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들이 30일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의 정신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성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의 문

의가 잇따르고 있어 참여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 소식, 우리가 생생하게 전해줄게요”

전남교육청 홍보기자단 모집
내일부터 전남교육통서 신청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 교육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줄 홍보기자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참여를 통한 전남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5월 1일 이후에도 수시 접수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누구나 참

여 가능하며,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기자단과 명예집필진, 두 분야에서 모집하며, 위촉된 홍보기자단은 기사, 수필, 칼럼, 사진 등 전남교육 홍보 콘텐츠를 생산해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도교육청은 5월 중 홍보기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직 언론인과 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소통 한마당에서는 홍보기자단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게 된다.

양기람 기자

광주교육청, 신학기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단계별 대응·민감군 학생 관리 등
상시 현장점검... 안전한 환경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건강보호 및 관리대책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운영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

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체 학교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다. 또 학교 현장에 △실외활동 자제 △공기정화장치 가동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안내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 이상 발령 시 부교육감을 분부장으로 선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한다. 비상대책반은 각급 학교에 △민감군 학생 보호 △휴업명령 등 학사운영 조정·관리 등의 대응을 지

원하고 총괄하게 된다.

또 평상시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점검도 나간다. 상·하반기 각 80교(원)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특별점검 및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발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양기람 기자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HAVE MORE FUN!

Life Food, Domino's.

도미노피자에서 가맹점 대표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영광/완도/영암삼호/장흥/강진/진도

☎ 02-6954-3059 | ✉ khgoo@dominos.co.kr

☎ 02-6954-3020 | ✉ syyoo@dominos.co.kr